

특별한 호재 없이 악재만 수두룩해

2001년 한국출판을 전망한다... 출판계 양극화 현상 심화될 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출판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소형서점의 폐업이 잇따르고,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의 성장세가 제자리 걸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터넷 서점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도서유통시장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출판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해 출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출판계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를 지도 없이 항해해야 할 형국이다. 제2의 IMF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출판시장을 압박하고, 지난해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었던 정가제 논란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호재 없이 악재만 수두룩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수직하락하기 시작한 경기불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출판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출판 패러다임의 변화 가시화될 것

올 한해 출판계 판세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은 역시 정가제 문제다.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서점업체측 사이에 생존권을 건 극한대립으로 나아갔던 정가제 논란은 '출판유통현대화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사이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이상과열 조짐을 보였던 전자책 열풍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적막 속에 빠졌지만, 출판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조짐은 감지됐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이승용 출판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출판산업은 현재 격변의 와중에 있다. 지난해에 급변하는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이 출판계에 제출됐다면, 올해는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해야 하는 때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지난해에는 밀리언셀러 대박을 터뜨린 소위 '빅4'가 출판시장을 주도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송인서적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순위 500위 가운데 50위에 든 책이 전체 매출액의 47%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해리포터 시리즈》《가시고기》《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국화꽃 향기》 등이 48%나 점유하는 등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대형 베스트셀러가 출판시장의 매출액 신장을 이끈 일

등공신이었지만, 인문사회과학 도서나 전문 학술서를 침체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도 과연 밀리언셀러가 나올 것인가.

"이제 출판시장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독자들은 지배적인 독서경향을 뒤쫓는 경향이 있다.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출판구조 자체에서 대형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는 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의 전망이다.

도서 분야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경영서, 컴퓨터 도서 등 실용서가 강세를 유지하고, 여성·아동용 도서시장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IMF를 전후한 시기의 독자들 반응에서 나타나듯,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바뀌면 실용서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책을 찾는 발길이 느는 반면,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 비소설류나 여행·취미서 등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특히 아동도서 시장의 경우 2~3년 사이에 중견 출판사들이 앞다퉀 뛰어들어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기획력 갖춘 출판사만이 경쟁력 있을 것

출판시장이 불황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발맞춰 각 출판사들의 조직정비와 군살빼기 움직임도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디자인·제작부문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출판사 내부에는 기획과 영업부서만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울림의 송주한 대표는 "올해 은행 통폐합 등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방만한 조직과 백화점식 영업에 의존하던 출판사들의 비밀 언덕이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독특한 기획력과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출판사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도매상들은 올해를 인터넷 비즈니스와 물류현대화의 원년

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올해 말경 파주에 1만3천여평 규모의 출판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물류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 출판사와 서점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B2B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올해 한국서점대학 강좌를 개설해 서점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출판유통은 올해 인터넷 비즈니스를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 거래서점과 출판사를 인터넷 시스템에 기반한 SMC(Supply Chain Management) 방식으로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출판사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서점은 신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도매상은 주문과 발송 업무를 대행해준다. 이를 위해 출판유통은 지난해 5월부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약 25만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대형서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면서도 8~12%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보문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10% 미만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잠정 예상했고, 영풍문고는 7~8%, 종로서적은 10%로 예상 매출액 목표치를 잡았다. 도서정가 인상분 외에는 별다른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서점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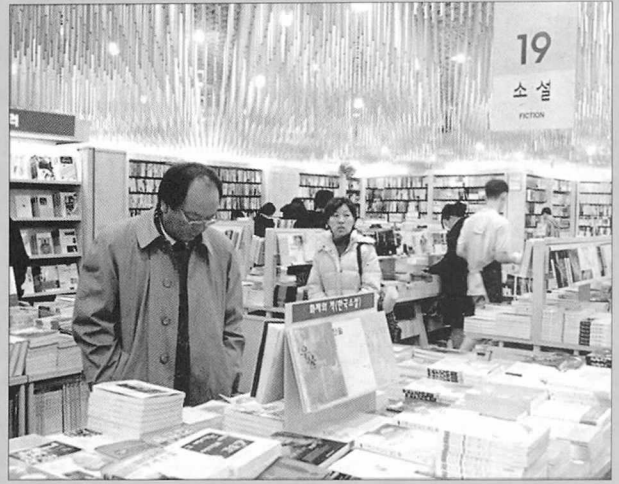
서점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대형서점들은 기존의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종로서적은 올해 초 인터넷 종로북스를 독립법인으로 설립, 서점 31곳과 제휴해 도서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영풍문고는 기존의 저자 사인회 등에서 벗어나 출판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지난달 말 인터넷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는 등 인터넷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형 서점들의 폐업 계속될 듯

“대형서점이 지역별로 분산화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상권이 확연히 분리되는 추세다. 이제는 매장의 매출액 상승이 거의 한계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서점별로 특색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하거나 제휴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종로서적의 정광화 홍보팀장의 말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중소형 서점들의 폐업·전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999년 4595개였던 서점수가 지난해는 3450개로 1천여곳이 훨씬 넘는 서점이 사라졌다. 서련의 임종은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서점의 미래가 갈릴 것이다. 인터넷 서점과 할인마트의 영향, 출판사에서 학습지를 학원으로 직접 납품하는 영업형태 등에 따라 서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출판계는 상반기까지 약재의 지뢰밭 속에서 조심조심 활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매장.

지난해 출판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인터넷 서점이었다. 전자상거래의 수익모델 사업으로 인터넷 서점이 각광받으면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현재 150개 이상이 난립해 있다. 인터넷 서점업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해 1500% 급신장해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YES24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매출액이 신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알라딘은 250%, 북스포유는 1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의 미래를 낙관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보다는 제삿값 기식의 과도한 할인을 경쟁과 과도한 물류비용 등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들이 올해 안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한 상위 3~4개 업체만 생존할 것이며 나머지 업체는 소멸하거나 통합되리라는 것이다. 몇몇 대형 인터넷 업체에 외국자본이 본격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대대

지난해부터 시민운동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도서관 문제가 사회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올해 공공도서관 예산은 아직 국회심의를 통과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서관협회측은 출판계와 도서관의 공동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학교도서관문제를 꼽고 있다.

도서관협회 이용훈 기획부장은 “올해 학교 도서관 건립 문제가 도서관계의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다. 문화개혁시민연대나 몇몇 국회의원 등의 의지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립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출판계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박천홍 기자